

2007 7

제7권 2호 통권26호

햇볕

2·28의

www.228.or.kr

- 시론 |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 이만도
- 2·28 특집 |
 - 컬러풀대극페스티벌 그곳만의 축제를 꿈꾸며 - 이진
 - 세계유상선주신대회 유치과정과 대회 개최방향
 - 남북철도시험운행 선진통일 한국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 - 김중
 -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대상작

- 특별 기고 |
 - 학부모의 2·28대극학생의자 자료공개
 - 서원탐방 "금암서원"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100% 고객만족 실현! 동우E&C의 약속입니다.

동우 E&C는 1985년 건축설계 회사로 출발하여 토목, 도시계획, 안전진단, 리모델링, 사업관리 분야에 있어 기획, 설계, 감리,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one-stop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우E&C는 100%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ISION!

꿈이 있습니다.

남보다 진보 앞선 신기술개발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뚝심있는 동우가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한 미래 설계,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움, 완벽한 고객 만족,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모토로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동우가 되었습니다.



GREEN & CLEAN!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푸른 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TECHNOLOGY!

one-stop 서비스로 고객 만족의 근대화 추구 전지식, 신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시안명확별 기술자료 체계화로 지식기반 구축



FIGHTING!

엄격한 계약인의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안전이브레드 확대 시행 변화에 앞서 나가는 완벽적인 조직 운영



POWER!

재무구조의 건실화로 안정적 경영상태 유지 원가분석을 통한 차비용 효율을 추구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통한 만능의 수많은 확대 판매 여가서나 경쟁력 1위의 동우

업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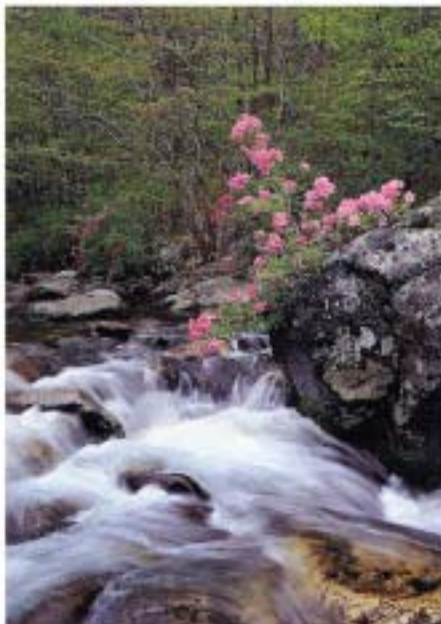
- 건축계획 · 설계
- 토목설계
- 도시계획
- 종합감리
- 전기 · 소방감리
- 개발사업
- 리모델링
- 안전진단

동우 E&C

DONG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주)동우이엔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홍 호 용**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1 영남B/D 10F TEL:(053)749-2000 FAX:(053)756-9754



제7권 2호 통권 26호 계간

발행인 / 류진춘

편집인 / 김약수

인쇄 / 2007년 7월 10일

발행 / 2007년 7월 10일

편집주간 / 김상규

편집위원 / 김동환, 김종민, 김현철, 박명철, 이병현, 장영향

발행처 /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제작 / 모른프린테크 (053)422-3344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어암로4 (신암3동 164-1)

(대구은행 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homepage : http://www.228.or.kr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2·28의 햇볕

2007년 7월
제7권 2호 통권 26호 계간

- 2·28 시론** 04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 이필동 대구유치원레스토랑 김명욱원장
- 2·28 특집** 06 컬러풀대구레스타일! 그곳만의 축제를 꿈꾸며 / 한전기 대구축제조직위원회 축제기획단장(윤갑득)
- 10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과정과 대회 계획방향 / 대구광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단
- 16 남북철도 시험운행, 선진통일 한국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 / 김정수 통일부 정책기획관
- 20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 권모예 경북어지고등학교 1학년
- 21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시상식 축하 / 류진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22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심사평 / 이태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글짓기 심사위원장, 시인
- 24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대상작
- 29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수상자 명단 / 학교별 입상현황

- 특별기고** 32 특별기고 - 학부모의 2·28대구학생의거 자료공개 / 정리 : 박명철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34 서원탈방 - '자연에 노닐다가 다시 가락에 누울 것이오' / 임해남(기)경상남도통영시 내해(해곡) 경문헌(海州)지 선생과 글쟁이(정우)정우(정우)

문예광장 39 콩나물 / 손진은 경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계 교수

- 2·28일지** 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4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 42 대구시립국악단 초청연주회 성황리에 열리
- 44 2·28자연보호산악회 친인 미야산(686m) 등반행사
- 45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사업
- 48 제2회 대구·경북 지역혁신대전

※ 게재된 글은 본사업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편지를 다음호에 게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회안내 ※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돕는 여러분의 정성은
2·28정신의 계승발전과 우리나라 21세기 민주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 2·28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회원명단은 영구히 전산입력 보존됩니다.
(학생 1,000원, 개인 20,000원, 단체 100,000원 이상)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8-05-002264-2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회비 및 협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보려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54호)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



이 필 동
대구유지컬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것 번째 문제는 우리 지역문화가 아직도 서울문화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전문가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 분권이라 하겠다. 이는 정치나 경제 분야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의 본질이 다양성에 있다고 본다면 문화야말로 무엇에 우선하여 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껏 우리의 문화현상은 서울 문화의 아류 내지는 분파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도 정치, 경제와 같은 논리로 서울 중심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모든 문화예술단체나 기구도 서울은 본부요, 지방은 지부라는 등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 당연히 지부 회원은 서울 눈치를 봐야 하고 서울의 경향을 따라가야 시대에 맞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는 것이다. 원래 문화라는 것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고 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이라는 것은 문화의 획일화를 말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문화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 문화 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독자적 결정에 의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우리식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인 경우 지방의 특성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문화에 있어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문가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느 시대이건 선각자적 예술가는 이단의 취급을 받기도 하였지만 인류역사는 그런 천재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할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공포에서는 아직껏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공무원 중심의 관료사회이기 때문이다. 6, 70년대의 고도성장을 공무원이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료화 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상당한 분야가 공무원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공무원이 사회발전을 주도하던 개발도상국 시대가 아니라 OECD에 가입을 한 경제 강국의 시대가 된 것이다.

현대사회는 스페셜리스트들의 사회라고 하듯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는 탁월한 식견과 비전을 가진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가 제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간혹 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나 문화공간의 설립, 혹은 문화행사의 기획이나 집행에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를 끼워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도 대부분 통과

례로, 결정적인 부분은 비전문가인 행정가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문위원들이라는 분들도 상당수는 현장 경험이 별로 없는 교수 일변도여서 현장에서 나온 체험을 통한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자문보다는 탁상공론식 자문이 많다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이는 공식사회에 퍼져 있는 「교수지향적」 사고(思考) 때문으로 교수들의 이야기는 법전이요, 현장의 전문가 이야기는 늘 하는 잔소리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가 발전 하려면 우선 문화적으로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의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는 이 대구·경북은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며 한민족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한 채 서구문명이나 서울문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하루 빨리 되찾자. 그래서 침체된 경기도 되살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되살려 우리의 고장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것이 이 시대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 🍌



Colorful DAEGU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그곳만의 축제를 꿈꾸며 |

'지역사랑의 소박함과 평범함에서 발현되는 창의성과 그곳만의 콘텐츠'



한 전 기
연출가, 대구축제조직위원회 축제기획단장(총감독)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 대구가 글로벌패러다임 속에서 무한 경쟁의 주체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경영의 주체들은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홍보한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전략을 수립하며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화산업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다각도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글로벌경쟁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으며, 도시의 환경, 역사,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 시대에 들어와 있다.

국가의 힘과 경쟁력의 원천이 물질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에서 문화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는 도시든 하물며 개인조차 정체되거나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은

GU

것이다.

불과 10년 전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화시대를 지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산업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했고, 전 세계는 정신없이 변하는 IT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따라가기 바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성과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콘텐츠' 시대를 준비하라고 한다.

콘텐츠웨어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물 밑듯이 몰려온 시대조류는, '네트워킹'을 향해 열심히 치달으며 나아가던 지식기반조차 일시에 문화적 향유를 위한 對象物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꿈과 감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차별화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열린 것이니 바로 꿈과 감성의 토양인 '문화'와 꿈과 감성을 창조하고 자극시키는 '문화 콘텐츠'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콘텐츠는 층위도 없으며 장르도 없으며 범주도 없는 '완전 열린 우리들'이라는 특성만 있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다. 이 도깨비방망이 같은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양태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지우는 무한 창조 경쟁시대를 맞은 것이다.

콘텐츠시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문화의 시대이며 예술의 시대인, 무한창조의 시대가 열림을 말한다. 이는 막연한 구호로 '문화의 시대'를 들고 말하던 말로만의 '문화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개인과 지역과 국가가 문화적 환경과 창의성의 무한경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제 '창의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창의성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사회의 특성이 된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가 예술 행위를 예술가들만의 전유가 아닌 대중의 공유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예술시대를 실천하고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는 창의적인 것만이 살아 움직이는 '무한발달'과 '무한자극'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야기가 없는 상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며 느낌이 없는 상품은 외면당할 것이다. 국가든 도시든 개인이든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며, 꿈과 추억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과 산업은 空洞化될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시대는 곧 창의성의 시대이며, 창의성 시대의 도깨비방망이는 '역사 문화적 환경적 정체성'이다. 지역과 국가는 그 곳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콘텐츠시대에 부응도 선도도 모두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이다.

문화도시를 내걸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지는 어중간한 대도시 대구의 희망은 기술적 문화마케팅과 이벤트성 행사 개최 전술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콘텐츠시대의 양태적 특성만을 쫓아가는 얇고 지엽적인 전술로는 이미 지나 가버린 트렌드를 차아도 취하며 즐기는 우스꽝스러움만을 보여줄 뿐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게 토론하고 논의하여 문화도시 대구를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적 접근이 아닌 문화의 시대에 맞게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 도시 콘텐츠를 생산해 내어야 한다. 콘텐츠시대의 특성은 언제나라도 정신만 차리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널려있는 콘텐츠들을 창의적으로 엮어 낼 수만 있으면 콘텐츠가 된다는 점이다.

'그 곳만의' 콘텐츠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 하지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문화도시발전 전략의 수립을 통해 마련되는 창의적 콘텐츠는 작의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지

역에 대한 사랑에서 넘쳐 나오는 아주 소박한 것이다. 지역의 특성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범함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역사랑의 소박함과 평범함 그리고 그곳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을 찾아나서는 일 이것이 대구가 살아남는 일이다.

2007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난 앞에서 말한, 바로 '지역사랑의 소박함과 평범함에서 발현되는 창의성과 그곳만의 콘텐츠' 그것이 무엇 일까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관제축제의 한계를 안고 있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이 고민은 창의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과는 다른,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했다. 깜짝 놀랄 행사나 굉장한 볼거리 행사를 만드는 일과는 거리가 먼 가치로운 삶의 영위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민과 함께 축제가 생성하고 파생시키는 인류학적인 흐름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인 효용까지 생각을 넓혀야함을 요구 받았다.

일견 이윤배반적인 축제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민과 사회경제적인 요구의 동시적 제기는 이벤트 행사중심의 축제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적 동념을 일거에 뒤집어놓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2007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먼저 이 축제가 만들어진 서로 상충되는 복합적 배경에 충실하고자 한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문화향유의 확대를 위한 소박한 시민축제가면서 도시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마련되었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이 참여하며 즐기는 소박한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이면서 동시에 축제가 가지는 인류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가치를 추구해야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축



제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 서로 다른 방향의 목적을 하나로 모아담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바로 '지역사랑의 소박함과 평범함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콘텐츠시대가 요구하는 작의적이지 않은 '그곳만의' 창의성을 찾는 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의 평범한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을 찾아내는 일에서 그리고 그곳의 꿈과 희망을 찾아내는 일에서 시민의 즐거움과 도시의 활성화와 축제의 가치가 찾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에게는 '동성로'가 있었고 '신천'이 있었다.

매일 매일이 축제날 같은 흥청거림이 있는 대구의 대표적 소비골목 동성로 오갈 데 없는 대구의 안

타카운 젊은이들이 무작정 매회하는 신기루 같은 도심번화가 동성로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동성로에 문화적 향기를 심는 일은, 무의미한 일상의 번잡스러움만 있는 소비골목 동성로가 그곳만의 창의성을 만들어가며 그 무의미한 골목의 일상이 대구의 대표적 공간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올해 축제의 해답은 구해졌다. 바로 '공간'이 축제의 주제가 되고 축제의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공간연출'이 이벤트를 흡수해버린 것이다. '그 행사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행사가 있다'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것은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축제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말한다.

이제 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문화적 추억을 담을 것이며 이 청년들의 추억들은 열정도시 열정골목 동성로의 이미지를 축적시킬 것이며 이러한 공간이미지는 공간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는 문화콘텐츠가 되어 지방정부가 희망하는 도시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성로는 대구의 아름다운 문화적 쇼-윈도우가 될 것이다. 허망한 소비골목 동성로가 대구의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문화적 열정으로 넘쳐나는 아름답고 친밀하고 다양한 문화골목 美/親/多골목이 되는 것이다. 이제 동성로는 美/親/多! 전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열정을 뿜내고 추억하기 위해 동성로로 몰려올 것이다. 축제의 목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건 아직 희망사항이다. 축제기획자가 꿈꾸는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공간연출'로 전환되어진 이 패러다임은 충분히 폭발적일 수 있음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구를 디스플레이하고자 하는 금년 축제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

[신천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과정과 대회 개최방향 |

대구광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단



들어가면서

대구는 2003년 하계U대회시 자크로제 IOC위원장과 IAAF 집행이사들이 경기장 시설과 대회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권 유한 데 힘입어, 대회 유치를 위한 야심 찬 도전을 시작하였다.

2002년 FIFA 월드컵,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시는 그동안 축적된 대회운영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하여 시민의 열정을 모아 마지막 결전장인 케냐 몸바사로 향했다.

2007년 3월 27일 오후 3시(현지시각) 케냐 몸바사,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의

외침, “2011년 대구-!”는 250만 대구시민이 하나로 뭉쳐 일궈 낸 쾌거로서 대구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을 벅차게 한 감동의 드라마였다.

‘스포츠 외교 경험이 없는 지방도시가 과연 글지의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이젠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로 바뀌었다.

대구시는 대회유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선물을 선사했다. 지방의 세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으로 제시되는 요즘, 2011년 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발판으로 대구는 이제 여타 지방정부의 부러움을 안은 채 국제 도시화라는 꿈과 비전을 실

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대구를 아시아 육상의 메카로 만들며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 대회 개최를 계기로 대구를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키는 한편,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의 품격(品格)을 높이고 비상(飛上)하는 대구의 모습을 전 세계에 펼쳐 보이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달리기, 던지기, 튀기 등 인간의 원초적 능력을 겨루는 경기의 특성 때문에 다른 스포츠보다 진한 감동을 보여주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로 지구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벤트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며,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제2회 대회까지는 4년 주기로 개최되다가 1991년 제3회 일본 동경대회부터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국은 212개로 국제연합(UN) 회원국보다 많으며, 세계 정상급 선수 2,000여명, 임원 1,500여명, 기자단 3,500여명 등 총 7,000여명이 참가하고 전 세계 65억 명 이상이 TV 중계를 시청하는 등 단일종목의 국제대회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지금까지 개최된 10차례의 대회 가운데 8차례나 유럽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2007년 제11회 대회는 일본 오사카, 2009년 제12회 대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3월 27일에 2011년 제13회 대회는 대구, 2013년 제14회 대회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개최지가 결정되었다.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될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8월말에서 9월초까지 9일간, 남자 24개 종목, 여자 22개 종목 등 총 46개 종목의 경기가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위 선양, 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대구 2003년 하계U대회를 통해 구축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시설 투자 없이 경제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대회 개최 시 5,8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산업의 수출증대, 해외투자 유치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스포츠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대회 유치과정

2004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의회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동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국제관계특별위원회 심의와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월 25일에 국내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2005년 6월 1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대회유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구시에서는 2005년 8월 10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을 설치하고 '유치위원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회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앞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2005년 8월, 핀란드 헬싱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표단 파견을 시작으로 총 28명의 IAAF 집행이사 가운데 24명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아시아 육상발전을 통한 세계육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회유치 명분과 대회 개최 여건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회 개최지 결정에 있어 체육인프라 이외에 국가 차원의 유치의지, 국민의 육상에 대한 열기, 경제계 지원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범국가적 지원체제도 구축하였다.

국회에서는 2006년 12월 8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

택한 후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를 구성하고, 2007년 2월, 유럽지역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케냐 몸바사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부의 확실한 지원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라고 인식하고 <유치지원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대구도 그동안 약점으로 대두되었던 국민의 육상에 대한 관심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60만 명 대회참관 확약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80여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대회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4개 업체에서 22억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대회유치 후원협정을 체결하였고, 3월 21일에는 서울특별시와 후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중확보 문제에 대한 IAAF 집행이사들의 의구심을 markedly 해소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IAAF 일정에 따른 대회유치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2006년 3월 20일, 대한육상경기연맹을 통해 IAAF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대구를 포함한 9개 국가에서 유치의사를 밝혀 대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유치경쟁이 이 때부



터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IAAF로부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준수 사항 등을 통보 받았으며, 2006년 9월에는 2011년과 2013년 대회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대구시는 2011년도 대회 유치에 노력을 집중하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2013년 대회 유치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2006년 11월 29일, 대회조직협정서와 14개 분야 104개 항목으로 구성된 유치신청서를 IAAF 본부에 제출하였다. IAAF에서 유치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대구를 포함한 러시아 모스크바, 호주 브리즈번은 2011년 및 2013년 대회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3년 대회만 유치신청을 하였다.

2007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현지실사를 위해 IAAF 실사단이 대구를 방문하였을 때 시민이 보여 준 유치 열기는 집행이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하였고, 대구가 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07년 3월 27일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꿈이자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우리 대구에 유치한 역사적인 날이다.

캐나다 몬바시에서 개최된 IAAF 집행이사회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와 호주 브리즈번을 물리치고 대구가 2011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는 영광을 누렸고, 2013년 제14회 대회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결정되었다.

유치성공 배경

대구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호주의 브리즈번 등 세계적인 도시를 물리치고 유치에 성공한 것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대구시민의 열정은 물론 전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쾌거이다. 독일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도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대구가 단 한번의 도전으로 성공한 것은 한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구시와 유치위원회에서는 대회유치 추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IAAF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에 다른 경쟁도시보다 앞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대구의 우수한 경기장과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회유치를 위한 핵심 지도부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가장 큰 성공요인의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박정기 집행이사와 IAAF 집행이사들과의 지난 16년간의 긴밀한 친분관계 유지는 유치성공의 실질적 기반이 되었으며, 유종하 유치위원장과 신필렬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의 IAAF 집행이사별 맞춤형 접촉활동과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것도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최근 유럽의 육상이 다소 퇴조함에 따라 타 대륙으로의 육상 저변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IAAF 내부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육상 약체국이라는 우리의 약점을 유치명분으로 개발하고, "Carrying the baton For World Athletics" 등 대구만의 특색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홍보한 전략이 강력하게 어필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시에서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IAAF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은 유치신청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집행이사들의 대구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실시단 방문프로그램도 경쟁도시와 차별성을 부각한 결과, 실시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실시평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는 물론, 실시평가단을 위해 마련한 정성과 시민의 열정, 대회 인프라 등에 감동받은 실시평가단이 '대구가 대회 유치에 전혀 손색이 없다. 지금 당장 개최도 가능하다' 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개최지가 결정되는 케냐 몸바사 현지에서는 대구의 강점인 선수촌 및 미디어 건설계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모형도를 설치하는 등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IAAF 집행이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주제화한 영상을 통해 아시아 육상 저변 확대를 통한 세계육상발전의 미래를 제시하였으며, 범국민적 유치열정과 육상에 대한 관심을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접목시키는 등 감성적인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대구에 우호적이었던 집행이사들의 지지표를 확고히 다졌고, 부동산 확보에

도 기여하였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대회유치에 큰 힘이 되었다. 2011년 대회 유치가 대구만의 과업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부각하였고, 개최지 결정 집행이사회에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문화관광부장관 등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대회 개최방향

대구시는 아시아 육상발전을 통한 세계 육상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11년 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아래, 최고수준의 경기여건을 마련하여 대회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와 환경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며,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국제도시 대구를 세계인들의 가슴에 각인시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문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대구주경기장 시설 등 하드웨어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었으나, 우수한 육상선수과 국민들의 육상에 대한 관심 등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보완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4년간 대구시와 체육계는 육상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세계적 육상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구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체육계 및 경제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후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동안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제대회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체육계,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에서 모든 스포츠의 기초과목인 육상의 발전을 위해 수립한 「한국육상발전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실천계획의 시행과 대회인프라 구축, 대회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물론 국내의 기업들이 열악한 육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들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중국의 류시양 선수 경우를 보면, 아세안으로서 같은 체격 조건인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단거리나 높이뛰기 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꿈나무를 발굴하고 '개인전담팀'을 붙이더라도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그동안의 국제대회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완벽한 대회 개최준비를 하고 중앙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단순한 육상경기로서의 대회가 아니라 '문화축제로서의 스포츠', '생활스포츠로서의 육상', '쾌적한 환경대회'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 체육계 고위인사가 대회 동안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지난 2003년 하계 U대회처럼 세계적인 관심 속

에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숭고한 스포츠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맺음말

대구는 2002 FIFA 월드컵,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역량, 최고의 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 육상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세계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겠다는 미션을 IAAF에 제시하였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경북만의 대회가 아닌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 국회, 체육계, 경제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기대해 본다.

대구는 반드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21세기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로 승화시키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 3대 스포츠 대회 개최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그 동안 열렬히 성원해 주신 국민과 한마음으로 단합한 시·도민을 비롯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유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 드린다. 🏆

| 남북철도 시험운행, 선진통일한국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 |



김 정 수
철도부 철도기차관

반세기 만의 한을 푼 철마

2007년 5월 17일 남북에서 출발한 기차는 각각 북남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하였다 비록 달리는 구간은 25킬로 남짓이었지만 기적 소리와 함께 군사 분계선(MDL)을 넘는 전동차의 기세는 통일시대를 이끌어 내고야 말겠다는 기상이 서려 있는 듯하였다. 경의선 어느 골짜기에선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며 이른 분단시대를 고통 속에서 시름해 온 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야 통일시대의 혈맥을 잇는 역사적 순간이 전개되었다.

달리고 싶다면 철마의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7년간의 화해협력의 노력을 꾸준히, 성실히 추진해 온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열차개통이 갖는 역사적·경제적·군사적 의미

열차시험운행은 전동차가 4량의 열차를 이끌고 동서부 전선의 MDL을 넘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

에 한 단계 접근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첫째,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즉 남북간의 물동량의 해운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운송거리와 시간을 단축시켜 물류비용을 <표 1>에서와 같이 약 80%까지 절감하는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표 1> 철도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 인천-남포

구분	수송일수(왕복)	운임(TEU당)
해상운송(A)	7~10일	\$ 720
철도운송(B)	1~2일	\$ 130
차이(A-B)	6~8일	\$ 588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 민족 화합의 상징인 개성공단 생산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약 1만 4천여명의 북측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버스 60대와 자전거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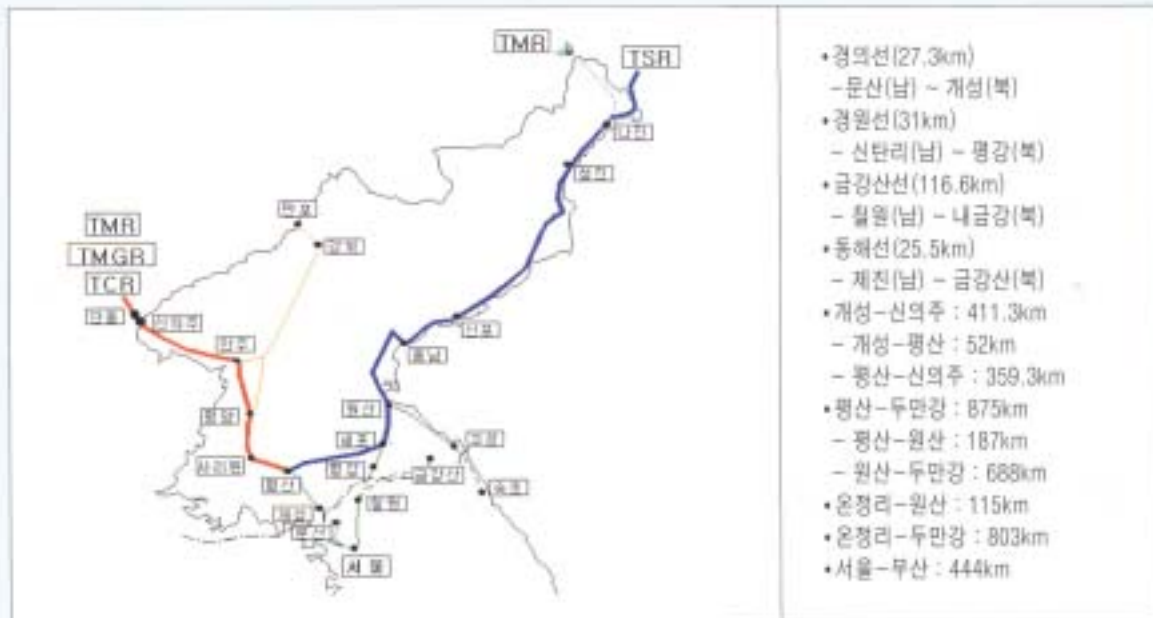


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7시 30분과 8시 30분에 출근하는 조가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45인승 버스에 100명이 탑승하는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만 하는 실

정에 놓여 있다. 철도개통은 이러한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철도를 대륙

〈그림 1〉 한반도-대륙철도 연결 가능 노선도



〈그림 2〉 대륙철도 연결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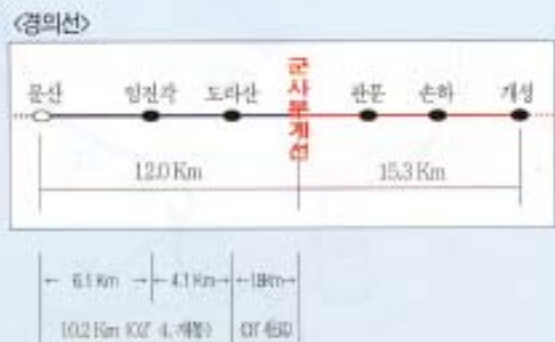
TSR	블라디보스톡 ~ 울란우데 ~ 모스크바	9,297 km	광궤
TCR	연운항 ~ 아라산쿠 ~ 자우랄리야에서 TSR과 연결	8,613 km	표준궤
TMR	도문 ~ 만주리 ~ 키림스카아에서 TSR과 연결	7,721 km	표준궤
TMGR	천진 ~ 울란바토루 ~ 울란우데에서 TSR과 연결	7,753 km	광궤

(TCR, TSR 등)와 연결시킴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흐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출중심의 우리경제를 생각해 보면 유력한 발전전략의 하나 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 건설에서 철도는 군사안보적인 남북협력의 뒷받침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슴 벅찬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림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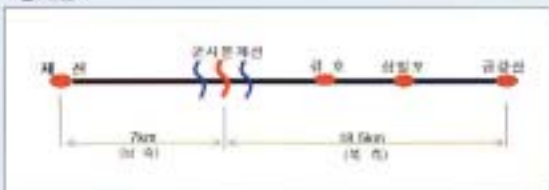
철도 연결위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규모

철도 연결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의

〈그림 3〉 경의선·동해선 구간



<동해선>



선(문산-계성) 27.3km과 동해선(제진-금강산) 구간 25.5km 구간에서 이루어 졌다.

철도연결을 위한 공사에 우리 측 참여인력은 2000년 9월부터 경의선 착공식부터 2005년 12월 동해선 남측구간 연결공사 완료시까지 연 73,900여명이 투입되었다. 투입재원은 총 545,401백만원으로 남측 구간은 364,525백만원이며 경의선 철도에 91,403백만원, 동해선 철도에 114,375백만원이 그리고 경의선 철도 CIQ건설에 25,989백만원, 공용야드 84,031백만원, 동해선 공용야드 48,727백만원이 투입되었다.

북측 구간의 투입재원은 180,876백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차관이 152,316백만원, 부대비용(수송비) 등이 28,560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철의 실크로드를 향한 과제와 추진방향

북한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동북아의 협력공간을 복원하여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협력확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 철도 현대화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기금의 확대는 물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적정 수준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의 철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재건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13 합의가 주목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6년 만에 철마가 길고도 고동스런 잠에서 깨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1년에 10만명 넘게 남북으로 오가고, 하루 300대가 넘는 차량과 30척을 웃도는 선박이 남북이 넘나드는 교류협력의 시대가 버티고 있어서 가능하였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철마가 달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에서 수출품을 가득 싣고 출발한 열차가 삼천리 강토를 힘차게 달리고, 나아가 유라시아의 넓은 대륙을 질주해 나가는 21세기형 철의 실크로드를 꿈꾸어 본다. 🚂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 대상에 경북여고1학년 권보예 -

4·19민주혁명을 이끌어 낸 2·28대구학생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반독재 민주운동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2·28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되새기고 21세기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전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올해로 일곱 번째 열렸다.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생까지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16개 초등학교에서 843

명, 6개 중학교에서 14명, 11개 고등학교에서 87명이 응모, 총 944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태수 전 매일신문 논설위원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하여 대상 1명, 초상급 20명, 은상 25명, 동상 30명, 입선작 58명 등 총 134명의 수상자 선정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가슴 가득한 자긍심'이란 제목으로 2·28을 보는 솔직한 심정을 소재로 통일을 생각하는 글로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여자고등학교 1학년 권보예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은 류진춘 공동의장, 김영수 경북여자고등학교장,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장, 대구지방보훈청 지도과장 등 주최, 후원의 관계 인사와 영예의 수상자, 학부모, 학교 지도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수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상장 수여 및 전수, 공모전 입상작 작품집 전달, 류진춘 의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낸 학교에 단체상으로 대구월촌초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그리고 지도교사상으로 대구서부초등학교 교사 박영란, 대구월촌초등학교 교사 박미정,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선영 선생님께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수여되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당에서 있었던 시상식에는 본사업회의 류진춘 공동의장, 홍종흠 고문, 오명옥 고문 등 많은 이사가들이 참석하여 2·28정신을 계승하려는 후배 청소년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시상식이 끝나고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한국은행 1층의 화폐박물관을 관람하며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류진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우리 대구는 동일선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이어받아, 조선시대에는 학덕을 숭상하는 선비의 고장이었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조국근대화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민은 나라가 위급할 때는 언제나 구국의 일념으로 역사의 선봉에 서왔던 정의로운 시민입니다.

지난 47년 전 대구시민의 2·28민주의거는 불의에 항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횃불을 밝힌 우리고장 학생들의 순수한 민주열정과 뜨거운 나라사랑이 깃든 역사적인 민주운동이었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섰던 고귀한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행사를 하여왔으며, 2007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응모하였으며 그 가운데 훌륭한 작품들을 사계의 권위자인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입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의와 민주주의의 함성을 오늘에 되살려 잘못된 의식과 제도를 바로잡고 새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민주사회를 정착시켜 2·28민주운동의 참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신 계승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상생발전을 기하고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훌륭한 솜씨로 엮어낸 2·28정신을 담은 작품 속에는 나라 사랑의 정신과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글속에서 나타낸 생각과 정신은 곧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의 함성이요 의로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가 순간순간의 현실들이 모이고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들은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역사의 기록인 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단순한 문학적 의미의 글을 뛰어 넘어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쓰는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주역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큰 인물들로 성장해 나갈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주정신을 더 굳건히 지키고 이끌어 갈 내일의 2·28주역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내어 명예로운 입상을 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심사평



이 태 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 글짓기심사위원장 (사인)

먼저 이 글짓기 공모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신 주최 측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아울러 동참한 학생 여러분과 2·28 대구 학생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일선학교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28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언제까지나 이어져야 할 '현재진행형'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갈수록 올바른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대를 떠올릴 때 2·28 정신은 앞으로 더욱 값진 귀감이 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격년제 원칙에 따라 지난해 운문 공모에 이은 올해 산문 공모에는, 거의 해마다 그랬듯이, 중등부의 작품 응모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응모 작품이 압도적이었던 초등부의 경우 한 학교 학생들의 응모가 절대다수였으며, 고등부도 몇몇 학교 학생들의 응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학교와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2·28 정신 계승의 관건이 무엇인가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차원이나 지도 선생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글짓기 공모는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세대들에게 2·2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게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 응모된 글들을 읽으면서도 그런 의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짓기와는 달리 글썃 써 못잡게 2·28이라는 특정 주제의식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심사위원들을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글들이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거나 처음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주는 중압감 때문이겠지만, 내용이 엇비슷하고 자료 활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신의 눈높이보다는 지도 선생님의 영향이 큰 점도 간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표현의 묘미나 신선한 발상, 자기 눈높이에서의 창의력이나 개성이 글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제를 나름대로 소화하고 비교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 후한 점수를 줬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글짓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작품들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투성을 벗어나 글이 갖는 매력이 두드러지더라도 주제의식과 거리가 멀거나 가볍게 처리된 글들은 앞자리에서 다소 밀려났으며, 주제를 잘 소화하고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지나치게 상투적인 글들은 마찬가지로 점수를 낮렸습니다.

대상을 비롯한 상위권 입상작들은 부별이나 학교별 안배를 배제했으며, 장려상 이하의 작품들은 학교별로 어느 정도는 배려했음을 밝혀 둡니다.

글이 뽑힌 학생 여러분에게 축하드리며, 입상·입선한 여러분과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2·28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슴 가득한 자긍심"

경북여차고등학교 1학년 권보에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2·28대구학생민주의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동경유학생들의 2·28독립선언과 혼동하기도 하였다.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2·28 민주의거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 보지 못하였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대구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번에 나는 2·28 중앙공원에 가 보았고, 두류공원에 있는 2·28 대구학생민주의거기념탑에서 그날의 합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 기념탑이 원래 있었던 명덕네거리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2·28 민주의거에 대한 많은 자료를 검색하였는데, 이처럼 위대한 의거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던 것을 대구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때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열정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2·28 대구학생민주의거의 배경과 전개과정, 역사

적인 의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당시의 이승만 정부는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민심을 잃어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고자 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야당인 민주당 장면 후보의 연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당 정부는 직장에서는 각종 행사를 열도록 했으며, 대구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일요등교를 지시했고, 학교 당국은 학기말 시험, 영화 감상, 토끼 사냥, 졸업생 송별회, 입시수업 등 온갖 핑계로 일요 등교를 강행했다.

이에 항거하여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의 많은 고교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중앙통을 거쳐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자유당 경북도당사, 경북지사 관사 등을 돌며 자유당 정권의 악행을 규탄했다. 자유당의 학정과 공포 분위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직접 시위를 주도할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정당한 시위를 지지하였으며 쫓기는 학생들은 숨겨 주

는 등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고 교사들도 모진 책임추궁을 받았다.

2·28민주의거의 원인은 일요일 등교에 대한 불만에 있었으나 「학원의 자유」, 「학생을 정치의 도구를 삼지 말라」 등의 구호에서 나타난 것처럼, 등교 그 자체에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불의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요일인들 등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여당 후보의 정치집회 때는 단속수업을 실시하고 권력과 폭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청중을 동원하면서도 아당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요일등교를 강요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민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현실정치에 분개하고 있던 차에, 자유당 정권의 일요일등교라는 노골적인 학원 간섭에 자극되어 필기 불하게 된 것이다.

2·28민주의거를 자유당 정권은 과잉 충성론, 좌익 개입 혹은 민주당 사주론 등으로 2·28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했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은 5·18 민주운동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요즘에도 정치권에서 종종 색깔론 시비로 이어지고 있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의 고

교생들이 걸기하게 된 것을 알고 나니, 내가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 대구는 고려시대 때의 몽고와의 항쟁, 임진왜란 때와 구한말의 선도적인 의병활동, 1907년 서상일, 김광제 등의 국체보상운동,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대구지회의 항일투쟁, 1930년대 이후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 등으로 민족항쟁의 본거지였으며, 불의에 저항하는 전통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민주의거의 선봉에 설수 있



었다고 생각한다.

2·28 민주외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이래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으며, 그 외거는 3·15 마산의거와 4·19의거의 도화선이 되어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켰으며, 훗날 1979년 10월 부산·마산의 민주항쟁, 1980년 광주외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각종 민주운동의 표상이 된 역사적인 외거였다.

2·28 민주외거 이듬해인 1961년 명덕내거리에 기념탑을 세우고 그 뜻을 기렸지만 2·28 민주외거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90년대 들어서 뜻있는 인사들이 2·28 민주외거외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2·28 민주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지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게 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역의 민주전통과 정신을 가르치게 하고 있고, 2·28 민주외거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갖는 등 2·28 정신의 계승 발전에 노력해 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2·28에서 이어진 민주운동이 3·15, 4·19를 거쳐 1987년 6월 항쟁에서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그 이후 각 부문에서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 때 한국에서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외국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를 넘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제 독재의 부당한 억압이 없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2·28에서 비롯된 민주화외 과정에서 자유를 위해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요즘은 민주화가 지나칠 정도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위도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전취적 사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도 있다.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다. 너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과 밀없는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울 생각이 들 정도다. 2·28 정신이 시민의 참다운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경제 발전, 정치문화의 선진화,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2·28 정신을 대구시민만의 자랑이 아니라 불외에 향기해 온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열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은 열정이 있는 민족이



다. 어느 한곳에 집중하면 신들린 듯한 열정을 뽐낸다. 온 백성의 의지가 결집된 팔만대장경의 조판을 통하여 불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자 했던 고려의 항몽정신, 88 서울 올림픽 개최 기간중에 보여준 우리 국민의 질서외식, 1998년 IMF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붉은 악마의 응원,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친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2·28 의거는 불의에 항거하는 열정에 미친 학생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28의 열정을 조국의 통일에 쏟아부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릴 때, 남한만 그리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그린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북한이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라는 의식은 통일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통일을 위한 미친 듯한 열정만 쏟아 부우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연결과 열차 시범 운행은 영광된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여는 일이기에 우리 민족의 큰 경사이다.

철도 연결은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우리나라 내에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통과하여 유럽 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웅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2·28 정신은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민주운동의 진원지인 대구가 오늘날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이 지역의 정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우리 지역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어 그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한 지역민의 자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2·28정신을 이 시대를 밝혀주는 촛불로 삼아 진취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선봉에 서야 한다.

나는 이번에 2·28 민주외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와 같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의 부패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부패를 바로잡고자 몸으로 실천한 용기와 열정에 감동받았다. 대구의 고교생, 특히 우리 학교의 선배 언니들이 불의에 항거하여 용감히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우리민족의 열정과 결합하여 휴전선을 거둬 내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 



류진순 공동의장이 대상수상자에게 상장 수여



김영수 장학여고 교장이 금상수상자에게 상장 수여



오영욱 고문여 지도교사상을 전수



김영향 부의장이 단석상을 전수



수상자들의 담배인사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입상자 명단

대상 : 대구광역시장상

권보예 경북여자고등학교 1-7 가슴 가득한 자긍심

금상 : 대구광역시장상

김주호 대구월촌초등학교 4-3 민주화를 위한 용기
이정현 대구서부초등학교 4-7 2·28 민주 학생 의거
권예림 대구도원초등학교 6-4 민주주의는 작은 곳에서부터
김은혜 대구대청초등학교 6-4 2·28 민주운동
김지연 대구노천초등학교 6-5 1960년 고교생의 꿈
서효정 대구덕원중학교 3-6 순결한 붉음
박건태 대구장동고등학교 1-1 실현하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박형호 경북고등학교 3-1 내 가슴속의 불꽃 '2·28'
오세진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3-4 자유당! 자기만족 위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이하선 경북여자고등학교 3-11 나는 부끄러운 학생

금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서한솔 대구남산초등학교 4-2 자랑스러운 2·28 민주운동
정승현 대구월촌초등학교 5-4 아무도 할수 없었던 용기있는 행동
정명진 대구인석초등학교 6-3 '대단한 학생들, 미래의 희망'
노유정 대구고산중학교 1-10 어느 고등학생의 첫 햇빛
김남궁 서재중학교 2-1 2·28 민주운동
최지영 영신중학교 2-5 2·28과 함께한 날들
김선희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2-4 '작은 불씨가 내게 준 선물'
최영원 동문고등학교 2-2 내 가슴속의 불꽃 '2·28'
문연경 경북여자고등학교 3-2 2·28 희망의 등불되어 민주주의를 비추다.
박해인 경북여자고등학교 3-11 Boy be ambitious!

은상 : 대구지방보훈청장상

류한나 대구계성초등학교 5-2 희생물 소중히, 대구의 긍지는 높게
권민정 대구남산초등학교 4-2 선배님들의 우리나라 사랑
기사영 대구월촌초등학교 6-3 대구역사의 한 조각, 2·28민주운동
김세원 대구월촌초등학교 6-8 2·28 민주운동, 2·28 민주학생의거
박선영 대구대청초등학교 6-8 자유의 길을 걸여간 언니 오빠들께
성정화 대구월촌초등학교 6-3 무서웠던 2·28 민주운동!!
위정훈 서재중학교 3-5 '그날의 합성'
차미정 덕원중학교 3-7 민주화 제 1의 도시 대구를 위하여
김유림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2-4 2·28 학생민주운동에 대하여
김선희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2-4 열혈고등! 1960 거리 졸업장'

은상 : 2·28공동의장상

박이슬 대구서부초등학교 4-7 나도 멋진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요.
배주환 대구서부초등학교 4-6 최초로 펼쳐 일어났던 학생들의 용기
서현규 대구도원초등학교 4-5 2·28 민주학생의거
오나경 대구도원초등학교 4-5 자유를 향한 2·28 민주학생운동
조재경 대구남동초등학교 4-1 2·28 민주학생의거
이다현 대구황금초등학교 5-1 언니, 오빠들의 잊발힌 영혼을 생각하며
강주연 대구황금초등학교 6-1 2·28이 보여준 용기
구민주 서재중학교 2-3 외쳐라! 그날의 합성을...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입상자 명단

은상 : 2·28공동의장상

김병덕	서재중학교 2-2	2·28 학생민주의거
박선주	대구서부중학교 3-3	2·28 학생들을 동경한다.
김방울	경북여자고등학교 1-1	2·28
김진희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2·2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나의 생각
서여경	경북여자고등학교 1-1	2·28 대구학생 민주운동
임성훈	도원고등학교 1-9	百萬 학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따끔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
이규빈	다사고등학교 3-1	민주주의의 태오르는 불씨

동상 : 2·28공동의장상

김재은	대구성동초등학교 4-7	2·28 민주학생의거가 우리나라 학교생활에 미친 점
최지윤	대구서부초등학교 4-7	항상 우리 곁에 머물게 해야하는 2·28의 정신
김지원	대구성동초등학교 5-9	피땀 고인 두 손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박희찬	대구상원초등학교 5-3	2·28 민주운동
홍은지	대구성동초등학교 5-5	언니 오빠들의 용감한 민주운동
강동윤	대구성동초등학교 6-7	2·28 학생 민주운동
박도형	대구대청초등학교 6-3	민주화의 불꽃 2·28 민주운동
박원솔	대구서부초등학교 6-4	만약에 그 날이 없었다면
오지영	대구성동초등학교 6-3	2·28 민주운동에 대하여..
이서영	대구상원초등학교 6-3	2·28 정신을 이어받자
조민희	대구금포초등학교 6-1	민주주의를 지킨 2·28 학생의거
차효은	대구상원초등학교 6-1	민주주의를 되찾은 학생들
채지민	대구황금초등학교 6-7	언니, 오빠들 감사합니다.
최수현	대구금포초등학교 6-1	나라 발전의 밑거름 2·28 학생의거
최유진	대구상원초등학교 6-4	내 마음에 용기를 심어준 2·28
김지은	서재중학교 1-8	학생이 이룬 민주주의 '228 학생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임민정	대구박원중학교 2-6	학교 폭력 근절은 2·28 정신으로
김민아	서재중학교 3-7	2·28의 드높은 업이여!
고민정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무제
김다혜	경북여자고등학교 1-12	다시 태오르는 2·28의 촛불
김민지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2·28운동, 그 정신을 이어받자
김지수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1-5	2·28 민주화운동
노지원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 2·28 정신의 소중함
서술영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대구 2·28 학생 민주화운동
이래희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1-2	2·28 학생민주운동
조근영	경북여자고등학교 1-7	2·28 대구민주운동
조선영	경북여자고등학교 1-13	무제
박은선	경북여자고등학교 2-5	오늘날에도 앞장서야 하는 학생운동
조하니	동문고등학교 2-12	의사표출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2·28
한 별	경북여자고등학교 2-7	불씨

입선 : 2·28공동의장상

최현지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3-8 외 57명

제7회 2·28민주운동 글짓기 공모 학교별 입상현황

구분	학교명	응모작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입상계
전 대 부 16	대구계성초등학교	1			1			1
	대구금포초등학교	2				2		2
	대구남동초등학교	1			1			1
	대구남산초등학교	2		1			1	2
	대구노전초등학교	1		1				1
	대구대청초등학교	6		1	1	1		3
	대구도원초등학교	3		1	2			3
	대구동호초등학교	4					2	2
	대구매곡초등학교	1					1	1
	대구상원초등학교	7				4		4
	대구서부초등학교	10		1	2	2		5
	대구성동초등학교	12				5		5
	대구월촌초등학교	709		2	4		21	27
	대구용산초등학교	5					1	1
	대구입석초등학교	1		1				1
	대구진천초등학교	73					6	6
	대구황금초등학교	5				2	1	2
계	17	843		8	13	15	34	70
중 대 부 6	고신중학교	1		1				1
	대서중학교	1					1	1
	덕원중학교	3		1	1	1		3
	서부중학교	2			1		1	2
	서재중학교	6		1	3	2		6
	영신중학교	1		1				1
계	6	14		4	5	3	2	14
고 대 부 6	강동고등학교	1		1				1
	경북고등학교	1		1				1
	경북여자고등학교	32	1	2	3	9	3	18
	다사고등학교	5			1		3	4
	대구공업고등학교	2					2	2
	도원고등학교	1			1			1
	동문고등학교	2		1		1		2
	영진고등학교	1					1	1
	정동고등학교	4					2	2
	대구세일여자고등학교	36		2	2	2	10	16
	회원고등학교	2		1			1	2
계	11	87	1	8	7	12	22	50
총계	34	944	1	20	25	30	58	134

고(故)해강 김수근 명예회장의 전기(傳記)

“가보니 길이 있더라”에서 (2007년 5월 10일 발행)

“인생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무궁하다”고 말을 남기고 간 향토출신 기업총수 해강 김수근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傳記)가 대성그룹6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되었다.

“가보니 길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400쪽이 넘는 단행본(비매품) 책자에는 일기장을 비롯 “2·28

대구학생의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2·28에 대한 최초의 학부모의 증언이 되어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평생 동안 일기를 써온 김 회장은 “대성”이 탄광 개발에 본격적으로 시작 한 무렵 1960년 2월 28일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60년 2월 28일 (청)

비행기(飛行機)로 鎭邱(구구), 慶北(경북)고생(고교생)을 비롯하여 市內(시내) 高等學生(고등학생)들이 示威行列(시위행렬)을 하여 空氣(공기)가 洶洶(홍홍)함, 高校生(고교생) 대(대)의 餘波(여파)로 市內(시내) 武裝警官(무장경관)이 森嚴(심엄)히 警戒線(경계선)을 치고 있으며 어딘지 不穩(불온)한 空氣(공기)가 감도는것 같다.

附高訪問(부고방문), 英大(영대)가 意外(의외)에도 附屬(부고)의 主動人物(주동인물)로 指目(지목)되어(어) 知事室(지사실)에서 特別調查指令(특별조사지령)이 있었(었)다는 事實(사실)을 李聖祚(이성조) 장학관(장학관)에서(으로부터) 들음(들음).

밤에는 刑事(형사)들도 來訪(내방)하였으며 深更(심경) 警察局長室(경찰국장실)에서 知事廳席下(지사임석하)에 校長(교장) 節親會理事長(사친회 이사장) 連席會議(연석회의)에 참석함

(주: 2·28은 “2·28대구학생의거”로 4·19의 도화선이 된 유명한 사건임)



이외에도 전기(傳記)에서 장남 영대(현 대성그룹회장)가 친한 친구 따라 서울대 공대로 진학하려다 "2·28대구학생의거" 때문에 갑자기 서울대 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이 대학진로 방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경대사대부고 재학시절인 1960년 2월 28일 대구학생의거에 적극 시위에 가담한 후 의롭고 용기 있는 어린 학생의 심정변화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故)해강 김수근 회장은 대구가 낳은 대성그룹의 창업자이고 반세기를 넘게 우리나라 에너지 개발의 큰 별이었다. 대성그룹은 1947년 5월 10일 "대성연탄"이란 이름으로 대구에서 연탄사업을 시작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8. 15) 보다 일찍 출발되었다. 광복 후 국가의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창업된 "대성"은 "민족통일"이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알낱을 어둡게 했던 격동기였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을 표방한 "대성"이 키워온 지난 반세기는 우리나라 산업발달사 그 자체다. 해강의 인물됨과 이미지도 그 세월 속에 새겨져 있다. 그는 석탄시대 창업가의 성실, 근면으로 묵묵히 정진해온 특성과 고생하는 이웃사람을 챙기는 인간미로 일관했고 성장기에는 공부하는 경영인, 도약기에는 거대한인도의 기반을 축적했던 일은 그의 참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다.

책의 말미에도 있듯이 해강 김수근 명예회장은 한국의 에너지왕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달사의 표상이다.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일, 곧 미래 우리산업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

(정리 : 박명철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자연에 노닐다가 다시 거적에 누울 것이오'

-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 낙애(洛涯) 정광천(鄭光天) 선생과 금암서원(琴巖書院) -



김 상 규
2·28의 횃불 편집주간

현대사회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맞물려 개인 중심의 사회로 바뀐 지 오래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과거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사회가 가졌던 기본 윤리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효(孝)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미 오래전에 사라진 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면 어느 누군가가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부개 누구누구는 참 효자(孝子)야, 효부(孝婦)야"라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곤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신



문이며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쉽사리 들을 수 없다. 오히려 반인륜적(反人倫的)이며, 패륜적(悖倫的)인 일들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뿐이다.

『論語(논어)』 「學而(학이)」에 보면 “효(孝)와 제(弟)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孝弟也者, 其爲人之本與]”라고 하였으며, 『童蒙先習序(동몽선습서)』에 보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도(道)는 효제(孝弟)일 따름이다.[堯舜之道, 孝弟而已]”라고 하였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가 어디 효제(孝弟) 뿐이겠는가. 효는 인(仁)의 근본이면서, 모든 일의 바탕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는 비록 한 가지 일지언정 실천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아버이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양지(養志)와 아버이의 몸을 봉양하는 양구체(養口體)가 그것이다. 뜻을 잘 받드는 자는 봉양하는 일을 겸할 수 있지만, 봉양하는 자는 반드시 뜻을 받들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부모의 뜻을 받들어 효(孝)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堂堂歲月如無意(당당세월어무의)
흐르는 세월은 무심도 하고,
戚戚悲愁似月期(척척비수사월기)
슬픈 그리움은 나날이 더해지네.
老境却將迫慕念(노경적將迫慕念)
늙음에 더욱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苦吟聊附蓼莪詩(고음료부요아시)
괴로이 읊조리는 것은 육아시라네.

이 시는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 1530-1593) 선생이 1590년 회갑연(回甲宴)을 맞았을 때 지은 「새벽녘에 강가 집에 앉으니 느낌이 있어 [曉坐江舍有感(효좌강사유감)]」의 일부이다. 회갑을 맞은 자리에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모하는 마음에 선생은 수연상(壽宴床)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선생의 추모마음은 6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쁜 날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육아시(蓼莪詩)는 『詩經(시경)』에 나오는 시로, 백성들의 삶이 고생스러워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한스러움을 읊은 시이니, 선생의 어버이에 대한追念(추념)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임하 선생의 「年譜(연보)」에 의하면, ‘5세 때 부친을 여의었으나, 어머님을 따라 조석전(朝夕奠)에 나아가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34세 때에는 내간상(內艱喪) 거상(居喪) 중에 시묘(侍墓)는 물론이요,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을 때도 부모님에 대한 추모의 눈물이 기쁨에 앞섰다고 한다. 또한 26세 되던 해, 부친의 묘 아래에 연화재(煙花齋)를 지어 분암(墳庵)으로 삼고,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어김없이 성묘를 하고 아침저녁으로 묘를 살폈으니 그 효성스러움을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선생의 뜻은 아들 낙애(洛涯) 정광천(鄭光天: 1553-1594) 선생에게로 또한 이어지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무렵, 낙애 선생은 임하 선생을 모시고 피난을 떠났다. 하지만 피난지에서서 만난 전염병으로 임하 선생은 병으로 눕게 되니, 낙애 선생은 「病中述續歌(병중술회가)」를 지어 부

친의 재유를 빌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곡진(曲盡) 하기에 여기에 옮겨둔다.

하느님아 하느님아 미는 뜻 아옵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믿는 뜻 알아주소서.
 惟一老人(유일노인)을
 教濟教濟(구제구제) 하옵소서.
 저 한노안을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언저리 老人(노인)을 되시고
 樂天終老(낙천종노) 하오려니고
 가까이서 부친을 모시고 세상 즐기며
 늙어 죽고자 합니다.

임하 선생은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며 성리학(性理學) 공부에 매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자(孔子)가 제자 안회(顏回)에게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즉 사물잡(四勿箴)을 써서 벽에 걸어 두고 존심성찰(存心省察) 하고자 한 점은 선생의 뜻이 명리(名利)를 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禮)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물잡(四勿箴)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非禮勿言],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非禮勿動]'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선생은 1568년 39세 되던 해, 임하초당(林下草堂)을 낙성하고는 '나의 외우(畏友)가 되리라' 했던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 선생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 · 태암(苔巖) 이주(李維: 1556~1604) · 푸암(浚巖) 채몽연(蔡夢演: 1540~1603) · 동강(東岡) 김우옹(金宇翬: 1540~1603)

등 도내의 이름난 학자들과 어울려 경서(經書)와 성리학(性理學)을 강론하였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세속적 명리(名利)에서 오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밝은 달 아래, 가로등 불빛이 호숫가에 비치는 때에 대금 소리에 맞추어 읊조리는 시를 듣노라면 하루의 피로가 동풍(東風)에 일음이 녹듯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풍광(風光)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이요, 다만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때를 잘 만나야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임하 선생의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모습과 청빈한 생활은 「竹露吟(죽비음): 대나무 사립문을 읊다」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甚深多病故人稱(항심다병고인회)
 세상 깊숙이 병이 들어 옛 친구 드문데
 淡泊生涯只竹簾(담박생애지죽비)
 담박한 생애에 다만 사립문만 있다네.
 莫道幽居無長物(박도유거무장물)
 그윽한 삶에 좋은 물건 없다고 말하지 마소.
 考槃時復臥牛衣(고반시부와우의)
 자연에 노닐다가 다시 거적에 누울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청빈(淸貧)은 선비가 지켜야 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이다. 비록 대나무 사립문의 가난한 살림이지만 자연을 유람하다 돌아와 누울 수 있는 거적은 은거생활에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겠는가.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이 바로 안빈낙도(安貧樂道)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또한 낙에 선생이 지은 「自
 鉸辭(자서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我飯我糲兮(아반아려해) 我衣我褐(아의아갈)
 내 밥은 내가 짓고, 내 옷은 내가 입고
 我奉我親兮(아봉아친해) 我撫我兒(아무아아)
 내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내 아들은 내가 기르도다.
 我飲我酒兮(아음아주해) 我詠我詩(아영아시)
 내 술은 내가 마시고, 내 시는 내가 읊고
 友我魚鳥兮(우아어조해) 隣我松竹(린아송죽)
 내 물고기, 새와 벗하고,
 내 소나무와 대나무 이웃하도다.
 欲語而語兮(욕어어어해) 欲默而默(욕묵어묵)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欲車而車兮(욕거어거해) 欲舟而舟(욕주어주)
 수레타고 싶으면 수레타고, 배타고 싶으면 배타고
 優哉遊哉兮(우재유재해) 自適無求(자적무구)
 실컷 노닐으니, 내 무얼 바랄까.

부자지간의 정은 끊고자 하여도 끊을 수 없으며,
 또한 아버이를 닮는 것이 아들이요, 아들이 닮는 것
 은 아버이가 됨은 천륜(天倫)이 그러하기 때문이
 다.

1593년 3월 14일 임하 선생은 피난지에서 전염
 병으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아버이를 잃은 슬픔은 낙에 선생에게는 커다란 고
 동으로 여겨졌다. 4월 1일에 쓴 낙에 선생의 일기를
 살펴보면, “요즈음 밤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을 뵈울 수 있다. 그러나 깨어나면 이승과 저승의 현저한 차이를 느껴 새삼스레 허망함과 애절한 마음이 더할 뿐이다. ...요사이 나의 근심 걱정을 누가 아랴. 오직 하늘에 부르짖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통곡할 따름이다."라고 하여, 아버이를 잃은 동한(肅愍)의 슬픔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낙에 선생 또한 이듬해인 1594년 3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선생은 "남쪽을 바라보니 친구 있는 곳은 첩첩 산중이라네. 어찌하면 저 땅을 줄여서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 낙에 선생을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하여 슬퍼하였다.

성서 계명대학교에서 다사방향으로 10분 정도 달리면 우측으로 매곡정수장이 나오고 정수장 사이 길로 1분 정도 달리면 좌측으로 연화(蓮花)마을이 보이는데 현재의 행정명은 매곡1리이다. 이 마을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대추밭 사이의 자그마한 옛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효(孝)와 학문(學問)으로 이름난 임하(林下) 정사철(鄭師哲), 낙에(洛誼) 정광천(鄭光天) 부자(父子)를 배향하던 금암서원(琴巖書院)이다.

금암서원은 1764년 琴巖祠(금암사)를 짓고 임하 선생의 위패를 모신 것이 그 효시(嚆矢)이다. 이후 1778년 낙에 선생을 종향하고 1786년 금암사를 서원(書院)으로 승격하였다. 하지만 1868년 췌철령으로 췌철된 뒤, 아직 복원하지 못하여 현재는 금암서당(琴巖書堂)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서당의 정문은 군자삼락(君子三樂)을 의미하는 삼락문(三樂門)으로 이 문을 지나면, 맞은편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서당이 바로 보인다. 서당의 주위로는 온갖 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어서 한번쯤 감상해 져을 만하다.

나날이 가족의 개념이 멀어지고 있는 이즈음에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효로써 남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서글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였던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청빈한 삶을 갈망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콩나물

털어버리기 위해 콩나물들은
 물을 맞는가
 퍼붓는 빗줄기를 뒤집어쓴 처마밑 개처럼
 목덜미 저리 세계 흔들어대는가
 푸르스름한 새벽부터 다시 잣아드는 황혼까지
 쇠아아에서 즐즐까지
 꼬르륵에서 푹푹까지
 세포 열어 기다렸음직도 한,
 깔깔대고 부비고 안겨오는
 마침내 발길 돌리는 물의 발소리마저
 애써 짜 말리는가
 붙인 듯 꺼버리는가
 화살 빗발치는 적진 뚫고 떠온 물을
 군사들 앞에서 쏟아버린 알렉산더처럼 비장하게
 내치고야 마는가 물 빠져나간 그 자린 킁킁한 허공 낀 채로
 계곡에 담그고 싶어 우줄거리는 발가락은 타이르며
 어깨 걸고 하늘길 가는 흰살결 은수지들 앞에 서면
 네 안의 열기로 키를 키워라
 검은 동굴을 수련거리는 먼 조상들의 음성



손진은

작가약력

1960 경북 안동 출생
 1987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으로 등단.
 1995 매일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당선.
 1996 대구시협상 수상.
 경북대 국문학과외 동대학원 졸업.
 경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시집 『두 힘어 숲을 설레게 한다』
 『눈만 새롭다 본 세상으로 풀어놓다』
 연구서 『서정주 시의 시간과 의학』 외.





2·28민주운동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법률 개정을 위해 힘 모아야 -

2·28민주운동은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서 건국 이후 민주운동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3·15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2·28민주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서의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본 사업회에서 현행법의 개정을 건의하여(2006. 11. 9)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26인 서명, 2006. 12. 29)로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킨(안 제2조) 의안번호 3724호에 이어,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이해봉 의원 등 24인 서명, 2007. 3. 6)로 민주화운동 정의에 2·28의거를 포함한 법인명 변경까지 포함한 의안이 의안번호 6203호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어 현행법이 개정되면 2·28민주운동이 법적으로 뒷받침 될 전망이어서 법률 개정을 위해 힘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를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가. 제명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한국민주재단법」으로 변경.

나.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2·28의거를 포함시킴(안 제2조).

다. 한국민주재단의 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라. 한국민주재단의 사업에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사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

마.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바. 국유재산 사용에 있어 양여 및 수익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제 15조).

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9조의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직 책	국회의원	소속정당	지 역 구	의원회관 전화번호
위원장	유인태	열린우리당	서울 도봉을	02-788-2228
간 사	정갑윤	한나라당	울산 중구	02-788-2206
간 사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02-784-2782
위 원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02-788-2349
위 원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	02-788-2207
위 원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02-784-2178
위 원	김재원	한나라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	02-788-2554
위 원	김정권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02-788-2645
위 원	안경률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02-788-2026
위 원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 서구	02-788-2493
위 원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02-788-2366
위 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을	02-788-2976
위 원	김영춘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갑	02-784-4174
위 원	신 명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02-784-3864
위 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02-788-2984
위 원	노현송	중도통합민주당	서울 강서을	02-788-2835
위 원	최규식	중도통합민주당	서울 강북을	02-788-2743
위 원	최인기	중도통합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	02-788-2927
위 원	김부겸	무소속	경기 군포	02-788-2806
위 원	박기춘	무소속	경기 남양주을	02-788-2432
위 원	심재덕	무소속	경기 수원장안	02-788-2005
위 원	이인영	무소속	서울 구로갑	02-788-2510
위 원	정성호	무소속	경기 양주, 동두천	02-784-4181
위 원	최연희	무소속	강원 동해, 삼척	02-788-2705

대구시립국악단 초청연주회 성황리에 열려 - 2·28기념사업회 주최 -



2·28민주운동 제47주년 / 6월 민주항쟁 20주년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개최를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2007년 5월 9일 오후 7시 30분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주영위)을 초청

연주회를 가졌다.

이 날 공연 1시간 전부터 굵은 빗방울이 뿌려 많은 시민이 함께 하지 못할 것 아닌가란 우려를 불식하고 대강당 1층을 거의 채우는 열기 속에 류진춘 공동의장의 인사말에 이은 주영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신내림 / 아리랑 순회 / 사물놀이와 태평소 / 거울나라 / 풍남문으로 짜여진 국악마당을 펼쳐 참석한 2·28 회원과 대구시민을 국악의 향연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 날 국악 공연은 본 사업회가 주최하고, 경북대학교 병원, 농협 경북지역본부, 동신건설(주), (주)동우E&C가 협찬하고 대구광역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후원하여 대구·경북 시도민이 1,000여석의 객석을 채우는 성황리에 열려, 영남의 빛나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모든 세대가 아우러지는 마당이 되었다. ▶





2·28 제47주년 기념 / 6월 민주항쟁 20주년 / 2011 세계특성상산수권대회 대구유치기념 대구시립극단 공연



국악공연에 앞서 인사하는 유진호 공동리장

2·28자연보호산악회

진안 마이산(686m) 등반행사

2007년 5월 25일 2·28자연보호산악회(회장 조 암)는 매년 연례행사로 계획된 2007년도 상반기 행사로 테마여행 겸 등반행사를 전북 진안 마이산 일원으로 정하고 명승12호로 지정된 마이산과 장수 의기주는개 생가와 사당을 찾았다.

진안 마이산(鎭安 馬耳山)은 암마이봉(686m)과 솟마이봉(679.9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봉우리가 서있는 모양

이 말의 귀모양을 하고있어 마이산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이산은 역암으로 되어있으며 그의 산체는 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을 이룬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의 풍화 표면에는 수많은 풍화열이 발달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크며 방정의 켈기작용에 의하여 생성 된것이라고 설명 들었다.

한편 장수군 장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의기주는개 사당은 생가로 가는 의랑루가 있고 연못과 정자, 주는개 석상, 사료전시관과 생가가 있다.

2·28산악회 회원들은 산행과 테마여행을 마치고 대구에서 류진춘 공동의장이 마련한 만찬장에서 산행의 피로를 푸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 날의 기념사진 한장이 생의 마지막 일줄이야... 그렇게도 적극적으로 2·28을 사랑했던 양수미회원(사진 : 앞줄 가운데)이 마이산 등산 후 보름이 지난 6월 10일 갑자기 고인이 되었기 때문... 슬픔을 억누르며, 하얀 백합꽃잎처럼 홀연히 우리길을 떠나버린 님에게 한마디

편안히 고이 잠드소서... 🌸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진단



6월 7일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6월 민주항쟁 20년 대구경북사업추진위원회,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은 탐구호 6월 민주항쟁 20년사업 대구경북공동추진위원장, 김사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진단이란 기초강연과 홍덕불 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이재성 계명대 교수의 6월 민주항쟁의 역사성, 민주화와 세계화의 변증법, 임재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의 6월 민주항쟁 대구와 시민사회, 김찬수 대구경북민중연대 공동대표의 6월 민주항쟁 이후 대구지역 진보운동의 흐름과 방향의 주제발표와 박영률 한겨레신문 기자와 조광진 대구KYC 공동대표, 이대영 대구경북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토론으로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며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대구지역 사회를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다. 📌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사업 다채롭게 열려

'6월의 함성! 민주와 통일로 전진하는 우리' 라는 주제로
6월 민주항쟁 20년 대구경북 시도민 민주주의 축제를 펼치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종교인평화회의 등 지역의 64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6월 민주항쟁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경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으로부터 진전된 과거 민주화의 성과를 계승하고 2007년 현재 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기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민주화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지역의 제 민주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연대의 축제를 통해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이하여 지역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민주적 열망과 참여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공간 마련하며 현 시기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와 한반도 평화, 사회적 양극화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 냉전체제의 해소 및 차별 철폐 등 다양한 민주주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이 단순한 기념행사로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사업기조를 토대로 2007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주년을 마련하여 각종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 6월 1일 오후 2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6월 민주항쟁 20년사업 대구경북추진위원회 사업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마당극 '6월의 꽃이 피었습니다' 와 현대사 자료 '적동의 한



국현대사' 전시하여 대구의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6월 민주항쟁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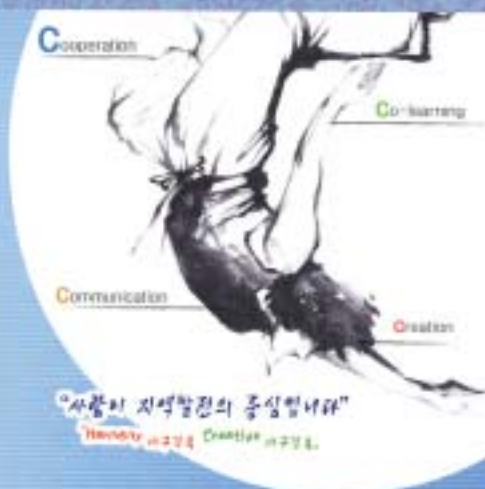
본행사로 진행된 6월 민주항쟁 20년 대구경북 시도민 민주주의 축제는 국채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전국 하나로 잇기 행사'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식'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항쟁 재현 거리행진' -6월의 약속! 민주와 통일로 전진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회상하며 우리의 각 오를 다지는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행진행식으로 표현하면서 '민주'와 '통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연출하고 87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러 진행된 문화한마당은 극단 함께사는 세상의 마당극 '87년 6월항쟁 재현극', 풍물굿패 대구의 튜전타악, 전교조 대구지부 춤패, 노래패 '좋은친구들', '소리타레', 튜전연주단 '그리Go', 신혜철 공연 등으로 시민과 함께 신나게 어울리는 한마당을 펼쳤다.

이 날 참여마당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 DPL,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길동무, 반딧불이, 대구 KYC, 공작소, 천연염색 등 15개 단체는 6월항쟁과 시민참여" 부스행사를 통해 다양하게 자기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만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축제마당 형성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적극 홍보하는 장을 펼쳤다.

5월 27일에는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전국 축구축전 대구지역예선 및 제 5회 평화통일축구 대회가 영남대학교 운동장에서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6월 17일에는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1,700여명이 참가하여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대구통일마라톤대회가 열려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6월 민주항쟁 20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



www.innoexpo.kr
제2회 대구경북 지역혁신대전

일시 : 2007. 6. 20(수) ~ 7. 6(금) 11일간
 장소 : 대구EXCO, 문경시, 예천군, 김천시, 성주군, 영주시, 울진군

신뢰 협동 소통 학습으로 세계적인 창조지역으로 지역발전의 희망 'C'앗 찾기, 지역 '자기완결적' 행사를 통한 지역의 대표적인 학습 축제로서의 혁신대전의 정착 시도,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등 주요 지역혁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 의견 수렴, 기초지역혁신협의회와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는 행사 '생활 속의 혁신 함께하는 지역혁신'을 추진방향으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지속적인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체들간의 학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대구경북지역 54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제2회 대구경북지역혁신대전이 2007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EXCO 등에서 열렸다.

대구경북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문경시의 문경시 전통 도자기산업 육성포럼 및 RIS구축분야, 예천군의 지자체분야, 김천시의 중소기업분야, 성주군의 초중등교육분야, 영주시의 대학분야, 울진군의 연구지원기관분야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문화행사로 지역혁신 C'앗 찾기 '多C 모여라!' 도심RPG(Role Playing Game)를 국제보상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등 동성로 일대에서 벌어진 협동·상생·사랑·건강·IT 등을 내용으로미션을

수행하는 게임과 체험마당(캐비마당, 전통마당, 생명마당), 자전거대행진, 밸리댄스 공연, 락 공연 등이 6월 30일 다채롭게 열렸다.

7월 3일 한국패션센터에서 열린 혁신대전 개막식에 이어 대구경북 사이버 지역혁신관(www.innoexpo.kr), 대구경북기초지역혁신협의회 총회, 대구경북지방분권협의체 발대식,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창립 5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이 EXCO에서 열렸다.

이어서 경북 북부권 발전 비전과 전략에 관한 토론회, 영남 정계권 형성과 공동클러스터 구축방안 세미나, 시도민과 함께 하는 국립대구과학관 만들기 토론회, 살기좋은 지역,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세미나,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심포지엄, 2007 대구세계애견산업엑스포 D-100,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 제시에 관한 세미나, 대구경북 공동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세미나-전자·정보기기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경북발전을 위한 6개 지역 민간단체 연합세미나, 대구뮤지컬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창업기업을 위한 첨단벤처기업 멘토링 등 7월 6일까지 지역혁신주체의 새로운 기약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리가 마련되었다. 🍌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

개최지역 및 일정



주최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군, 예천군, 울진군,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 문경시지역혁신협의회, 성주군지역혁신협의회, 예천군지역혁신협의회, 울진군지역혁신협의회, 김천상공회의소

주관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군, 예천군, 울진군,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 문경시지역혁신협의회, 성주군지역혁신협의회, 예천군지역혁신협의회, 울진군지역혁신협의회, 경북전문대학기독교단,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사)대구 경북철단 - 벤처기업연합회, (사)한국중소기업이업진흥재단 - 경북연합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경북대학연구저장 -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대구경북전문대학연합회 - 치타장협의회, 대구경북연구개발기관협의회, (사)한국산업기술재단

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문경시전통도자기산업육성포럼 및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RIS구축분야

전통도자기산업육성포럼

- 주제발표 I : 도자기 산업분야(발표: 경지원 한국관광학회 상설부회장)
- 주제발표 II : 혁신클러스터 가능성 분야(발표: 홍인복 문경대학 산학협력담당장)
- 주제발표 III : 신산업 기술분야(발표: 유태근 문경대학 도자기공학과 교수)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지자체분야

특강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전략
- 강사 : 황중규 경북기초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중소기업분야

특강

-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 강사 : 임영희 유한킴벌리 김현공명 전문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초중등교육분야

특강

- 시군구의 초중등교육실태와 개선방안
- 강사 : 조병민 경상북도 교육감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대학분야

특강

-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
- 강사 : 홍식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구경북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연구지원기관분야

특강

-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
- 강사 : 김홍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사람, 자연, 기술력
그리고 동신건설이 있습니다



국제품질인증규격(9000, 14000) 취득,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AA' 인정



동신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한, 김근한

주요공사 ▶ 경대병원 외래진료동 공사 ▶ 대구 4차순환도로(유천-대곡교) 공사 ▶ 굽호강 하천 정화사업

▶ 안동의료원 공사 ▶ 영주 선비촌 조성공사 ▶ 신서그린빌 아파트 신축공사 ▶ 경북병곡초등학교외3교신축 BTL사업(시공중)

본사 : 경북 안동시 동문동 131번지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97-2번지 | 서울지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월드오피스텔 1803호

창립 40주년

DGB 대구은행

변함없는 40년 사랑!
100년 은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DGB

